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느헤미야 52일 기도과 금식 (5/10-6/30)”

Let's Rebuild Together

“성벽 공사는 오십이 일 (52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났다.”

So the wall was finished on the twenty-fifth day of the month Elul, in fifty-two days.

「느헤미야 6장 15절」

이 기도 가이드는 느헤미야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의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말씀을 붙잡고 포스트 코로나19의 교회 (특히 연합감리교회와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와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재건축하기 위한 느헤미야 52일 기도과 금식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매주 주일에 배포가 될 예정이며 이 기도문은 6일 단위가 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섹션은 도입과 생각해 볼만한 질문, 그리고 날짜별 핵심 구절 및 짧은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그 말씀 구절과 기도문을 바탕으로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Section 6 | DAYS 32-38 [6/10 목요일 - 6/16 수요일]

낙망 극복하기 Overcoming Discouragement | 느헤미야 Nehemiah 4:1-23

도입 Introduction

우리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따라서 깊은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정서적 건강과 웰빙에 대한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우리에게 시편 23편에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안전한 장소임을 알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산만해질 때 이 실재를 보지 못하고 쉽게 낙망하게 됩니다. 점점 커지는 두려움과 낙망, 피로, 의심 그리고 절망 속에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 위대하고 놀라우신 천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는 가장 취약하고, 고립되며, 노출되어 있고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팔 소리와 같은 실질적인 전략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확실하고 신실한 기대를 따라 행동하고 기도하는지 신중한 평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과 대적의 전략보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We are living in an age of growing complexity, and therefore also of deep anxiety, raising many issues of emotional health and wellbeing. Dallas Willard encourages us to see that the Kingdom of God, as depicted in the wonderful words and sentiments of Psalm 23, is a perfectly safe place to be. Yet when our hearts and minds are distracted, it is very difficult to see this reality, and we easily become discouraged. In the face of growing fear, discouragement, weariness, doubt and despair, Nehemiah has to constantly turn people's attention back to the 'great and awesome' God of Heaven. He notices those situations which are most vulnerable, isolated, exposed and in need of protection, and develops practical strategies, such as the rallying sound of the trumpet! As we seek the Kingdom of God together, so our attention to God's purposes involves our own careful assessment of where and how to pray and act in confident, faithful expectation of God's intervention. God is with us always. We must keep looking to God more than to our own weakness or to the enemy's tactics.

생각할만한 질문 A question to consider

어떤 면에서 대적의 꾀방이 당신을 낙담시켰으며, 당신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릴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How are you growing in the strength that God promises to give you, to clearly discern and withstand the enemy's opposition to what God is seeking to accomplish in and through you?

DAY 32 • 6/10 목요일 의심의 씨앗을 극복하기 Overcoming Seeds of Doubt (verse 2)

느 Ne 4:2 (새번역)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 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느헤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드러나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당신에게 물어보십시오. Doubting our own abilities is a human trait which clearly goes back to Nehemiah's time, and way beyond. Yet the relevant question is not 'can we?', but 'can God?' Are you asking yourself a 'can I do this?' type of question? As you pray today, ask yourself instead whether God can do it.

DAY 33 • 6/11 금요일 **낮은 사기 극복하기** Overcoming Low Morale (verse 4)

느 Ne 4:4 (새번역)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그것이 사랑과 기쁨의 오랜 수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닥을 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낙담하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새로운 창조 에너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십시오. Given that Nehemiah's wall gets completed in 52 days, it's easy to assume it was one long labour of love and joy. But it wasn't. They hit rock bottom, but it didn't stop God from working through them. Pray for those you know who are feeling discouraged and unmotivated at the moment, that they will know God's endless, ever-new creative energy at work through them.

DAY 34 • 6/12 토요일 **피곤함 극복하기** Overcoming Weariness (verse 10)

느 Ne 4:10 (새번역)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흠터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여러분은 이 기도 여정의 2/3 지점에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구절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피로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대담하고 강력한 기도를 드리기도하는 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직장에서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마음과 몸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You are two thirds of the way through this prayer journey, and perhaps you can relate all too well to this verse. The best cure for tiredness is rest; so instead of praying something bold and powerful today, have a day off. Even if you've got a day at work, find time later to do something which re-energises your mind and your body.

DAY 35 • 6/13 주일 **피곤함 극복하기** Overcoming Despair (verse 12)

느 Ne 4:12 (새번역)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 고, 열 번이나 일러주었다.

느헤미야의 적들은 위험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절망만큼 위험한 곳은 없습니다. 절망은 완전한 소망의 부재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놀라운 속도로 그의 사명을 방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희망의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소망이 없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록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투 전략 중 하나입니다. Dangerous though Nehemiah's enemies may be, they are nowhere near as dangerous to the project as despair. Despair is the total absence of hope, and it can strangle God's Church and stifle his mission at an alarming rate. Could you sow a seed of hope today? Could you do something to encourage someone who's feeling hopeless? It may seem small, but it's one of the most effective battle strategies there is.

DAY 36 • 6/14 월요일 **두려움 극복하기** Overcoming Fear (verse 14)

느 Ne 4:14 (새번역)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느헤미야는 위험을 무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비판한다고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에게 도전에 맞서기 위해 일어서길 요청합니다. 오늘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주님을 기억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Nehemiah knows that you don't beat fear by ignoring or minimising the danger. Glossing over problems doesn't make them go away. Instead, he calls the people to rise to meet the challenge head on. Whatever you're afraid of today the most effective thing we can do is to remember the Lord, and fight.

DAY 37 • 6/15 화요일 **취약점 극복하기** Overcoming Vulnerability (verse 13)

느 Ne 4:13 (새번역)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두려움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단순한 언변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취약한 곳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되, 하나님께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인지 보여달라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취약함이 드러난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Nehemiah's response to fear isn't just a rabble-rousing speech; he has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places where they really are at risk. Pray for CKUMC and your family today, asking God to show you where you are most vulnerable. Pray for strength and protection in those exposed areas.

느 Ne 4:19-20 (새번역)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주신다."

오늘 여러분은 외로운 모퉁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교회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 부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You may feel as though you're building in a lonely corner today, but there are thousands of others who are praying for Kingdom of God along with you. Give thanks today that you are part of something much bigger than yourself and your own church.

